

[스페이스엑스] 루이지애나 1000 억 달러 스타십 기지 확정 - 우주 데이터센터 비전의 자본집약 확장



26.08.26 · AI Engineer 조재운 jaeun.jo@daishin.com

핵심 요약

- 루이지애나 스타십 기지에 1000 억 달러 투자 확정
- 분기 캐פק스 184 억달러, 매출 2.4 배 넘는 부담 지속
- 현금 1000 억달러 확보했지만 현금흐름 격차 우려

SpaceX 가 루이지애나에 1000 억 달러 규모 스타십 발사기지를 짓기로 확정했다.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 시설은 궤도 데이터센터 구축과 달·화성 비행이라는 장기 비전을 뒷받침하는 확장 계획의 일부다. 착공 시기나 구체적 자금 조달 방식은 이번 보도에 담기지 않았다.

직전 2 분기(FY26) 실적에서 이미 확인된 자본집약 구조를 한 단계 더 키우는 조치다. 당시 분기 캐פק스(설비투자)는 184 억 달러로 전사 분기 매출(78 억 달러)의 2.4 배에 달했고 대부분이 AI 인프라 확장에 쓰였다. Space 세그먼트는 반기 매출이 전년보다 줄어든 가운데 스타십 연구개발비만 늘며 영업손실이 확대되던 국면이었다. 루이지애나 기지는 같은 결의 투자로, 재사용성 개선(V3 12·13 차 비행 성공)을 실제 발사 빈도로 연결하려는 의지로 읽히지만, 궤도 데이터센터 사업이 어느 세그먼트에 편입돼 어떤 손익 구조를 가질지는 이번 보도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.

자금 여력 자체는 나쁘지 않다. IPO 로 857 억 달러를 조달하고 6 월 250 억 달러 채권을 발행해 기말 현금·시장성증권이 1000 억 달러에 이른 만큼, 이번 약정을 단기간에 감당하지 못할 규모는 아니다. 다만 향후 두 분기도 비슷한 수준의 캐פק스가 이어진다는 경영진 가이드언스에 이 신규 투자까지 겹치면, 반기 영업현금흐름(35 억 달러)과 투자 지출 사이 격차는 더 벌어질 공간이 크다. 대형 자본 약정이 잇따를 때마다 지출 부담이 부각되며 주가엔 단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.

관건은 이 투자가 Connectivity 가 벌어들이는 현금을 얼마나 빠르게 흡수하느냐다. Starlink 가입자·기업 매출이 꾸준히 이익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변함없지만, Space 와 신규 데이터센터 사업까지 동시에 자금을 요구하는 구조가 이어지면 GAAP 흑자 전환 시점은 더 늦춰질 수 있다. 착공 일정과 자금 조달 세부안, 데이터센터 사업의 손익 편입 방식을 다음 확인할 지점으로 본다.



재무 요약 (I/B/E/S 컨센서스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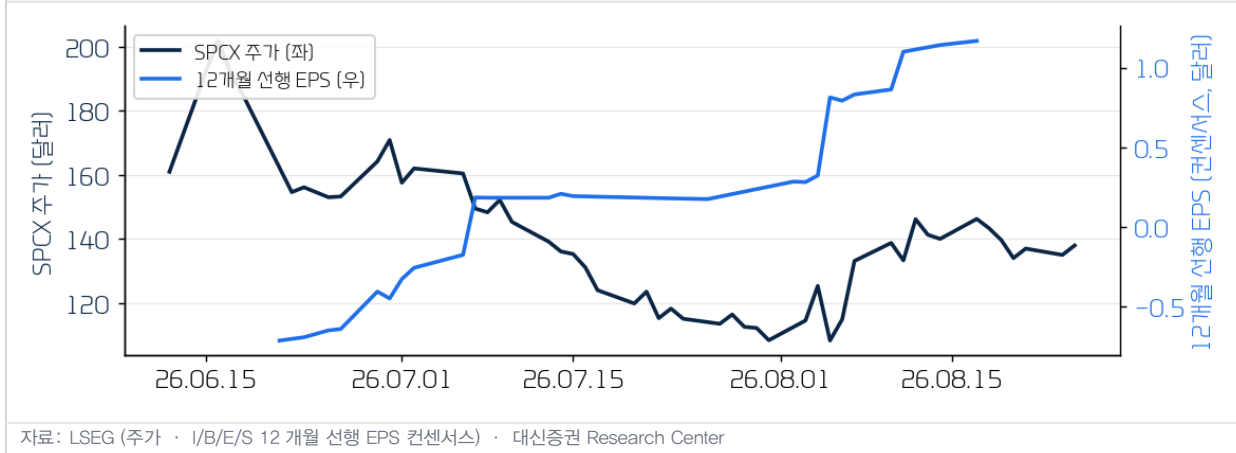
항목	FY-1	FY0	FY Dec-26 (E)	FY Dec-27 (E)	FY Dec-28 (E)
매출 (Revenue)	—	—	44.68	104.35	187.23
↳ 증가율	—	—	—	133.55%	79.42%
매출총이익	—	—	24.80	57.95	108.26
↳ 마진	—	—	55.51%	55.54%	57.83%
EBITDA	—	—	20.87	61.21	125.52
↳ 마진	—	—	46.72%	58.66%	67.04%
영업이익 (EBIT)	—	—	4.91	28.17	72.80
↳ 마진	—	—	10.99%	26.99%	38.88%
순이익	—	—	1.52	22.58	63.43
↳ 마진	—	—	3.41%	21.64%	33.88%
EPS	—	—	0.03	1.74	4.84
↳ 증가율	—	—	—	5124.70%	178.98%
잉여현금흐름 (FCF)	—	—	-36.55	-92.41	-70.98
P/E	—	—	4,150.1x	79.4x	28.5x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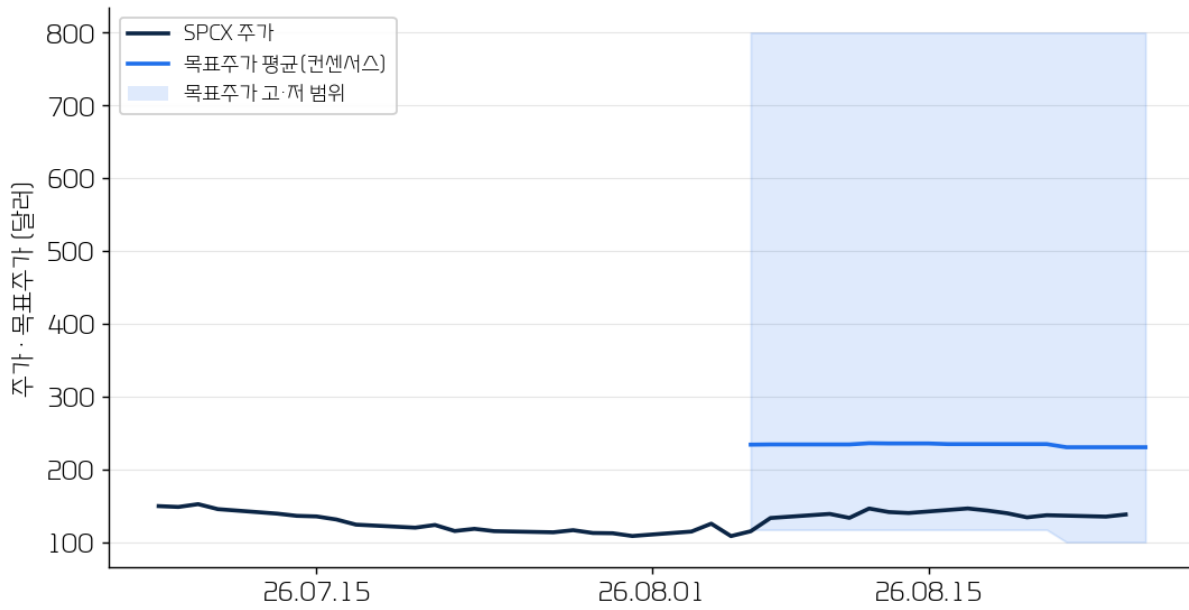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YoY, 단위는 십억 USD

참고 차트

SPCX 주가·12개월 선행 EPS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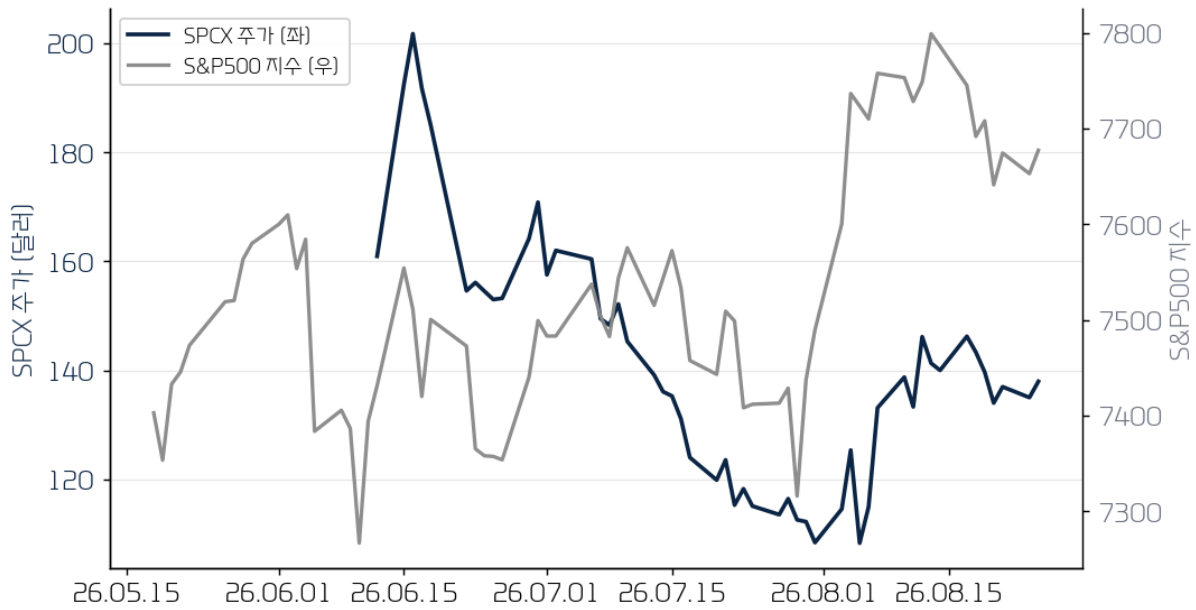


SPCX 애널리스트 목표주가 추이



자료: 각사, LSEG, Factset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SPCX 주가 vs S&P500 (최근 90 일)



자료: 각사, LSEG, Factset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Compliance Notice

-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(AI)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,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.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.
 - AI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
 -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 -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,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.
-